

## 발달장애 학생 대상 국내외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고찰

김아영\* · 이숙향\*\*

### Review on Research Tren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A-Young · Lee, Suk-Hyang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총 49편을 선정하고 연구주제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방법은 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구주제는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증재의 효과, 금융교육 관련 교사의 경험과 인식으로 나누어졌다. 증재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 대다수의 증재가 물건값 계산하기와 물건 구입절차 기술 습득에 편중되어 있었고 금융 및 경제 관련 개념 습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결론:** 이를 토대로 발달장애 학생의 향후 금융교육 연구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제교육, 금융교육, 금융문해력, 금전관리, 장애, 발달장애

---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제1저자, E-mail: miosami@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deepjoy@ewha.ac.kr)

## I. 서 론

한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적 요소는 돈이다. 인간이 사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도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기에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자금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경제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개인의 안녕도 보장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수많은 개인이 경제주체로서 올바른 경제적 판단을 내리지 못해 파산한다면 국가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돈의 흐름인 금융에 대한 이해와 사용과 관련된 능력 즉, 금융문해력(financial literacy)은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해 국가가 지도하고 개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금융교육에 관한 관심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융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OECD 정부들은 2002년 금융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OECD, n.d.). 이후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이하 INFE)가 창설되면서 금융문해력의 중요성이 강화되었고 2012년 G20 정상들이 OECD/INFE의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을 위한 국가 전략의 고위급 원칙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OECD, n.d.).

금융교육과 금융문해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2018 PISA Result(OECD, 2020a)의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은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가 금융 상품, 개념 및 위험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정보, 지침 또는 객관적 조언을 통해 금융 위험과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금융문해력을 습득할 수 있다(강남주, 손상희, 2021). Advancing the Digital Financial Inclusion of Youth(OECD, 2020b) 보고서에서는 금융문해력을 ‘건전한 금융 결정과 궁극적으로 개인금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와 행동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전과 거래, 계획과 재정관리, 위험과 보상, 금융부문을 포함한다. 외국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와 실행능력을 financial literacy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financial literacy를 번역한 금융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박성희(2018)의 연구 1건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연구에서는 경제교육, 재정교육, 금전 관리 능력, 화폐 계산능력, 금융이해력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이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교육 대신 경제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경제’를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으로 현실에서 돈을 관리, 계획, 사용을 위한 능력이다. 이는 금전을 융통하는 일인 '금융'의 개념에 가깝고 단순히 금융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닌 이를 실제 적용하고 사용(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괄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financial literacy를 금융문해력으로 그리고 금융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금융교육이라고 정하였다.

금융문해력 함양은 소득 수준이 낮고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금융과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장애인은 드물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률은 30% 미만이고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 고용이 불안정하다(임예직 외, 2022). 게다가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71%에 달하고 평균 임금이 100만원 남짓으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다(임예직 외, 2022). 적은 소득에 비해 76% 이상의 장애인이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할 만큼(보건복지부, 2020)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많아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금전 관리는 필수이다. 그렇지만 2022 장애인 통계의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가운데 금전 관리 항목에서 장애의 심한 정도에 상관없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73.5% 가량이 타인의 도움 없이 완전히 자립했지만 7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전혀 없고 오직 5%가량의 장애인만 세부 재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이는 장애인의 재정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금융 문해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실제로 79%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돈 관리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만큼 금융문해력 함양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고(임예직 외, 2022) 국내외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자립에 있어서 돈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김아영, 이숙향, 2023; Conder & Mirfin, 2020).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현명한 경제적 판단 없이 금전에 관한 재량권을 전부 가지면 소득과 지출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 결국 개인파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은 명의도용이나 대출사기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등 금융범죄에 취약하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기에(박광운, 2023; 황순영, 차세진, 2021) 금융범죄의 위협을 판별할 수 있는 금융문해력은 더욱 중요하다. 노동이나 재테크를 통한 재산의 증식이나 절제와 절약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인 소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진 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재산의 유지와 증식만큼 중요하다.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금전관리 기술과 금융피해 예방기술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박소민, 박지연, 2022) 금융범죄를 예방하거나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문해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경험 및 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다(장혜숙, 한경근, 2022).

그러나 이러한 금융문해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2010년 초반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장애학생의 경제개념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유진수, 정동영, 2013) 장애학생들은 용돈을 자기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고할 정도로 금전 관리 교육이 부족했다(김미옥, 박현정, 2012). 현재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많지만(권미영, 2018),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제교육의 낮은 중요성과 학습자료의 부족을 핑계로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장혜숙, 한경근, 2022). 일반교육과정에서도 금융이나 경제교육이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이다. 1987년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경제교육 강화에 따라 경제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경제교육 강화 여론에 따라 제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졌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 적정화에 따라 단원의 수가 줄어들었고(이소연,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도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실정이다(박성완, 2021).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는 별도의 금융 관련 교과목이 없고 수학, 사회, 실과,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금융 관련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더욱이 교육과정에 경제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아니며 개설률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진다(이혜정, 2023).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재정관리를 포함하는 금융문해력은 성인기로의 이동과 성인 생활 유지에 중요하기에(Bouck & Flanagan, 2010) 장애학생의 금융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졸업 전에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인기의 특징 중 하나인 자기충족(self-sufficiency)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자금 생산력뿐만 아니라 자금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자금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재정관리 기술의 부족은 장애 청소년들의 독립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며 성인기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Cheak-Zamora et al., 2017). 반면에, 발달장애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개인의 사회 참여를 증대시키고 주체성 있는 개인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돕는다(김미정, 2020). 적극적인 개인 경제활동은 경제 순환을 원활히 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교육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금융문해력을 신장하기 위한 금융교육 및 관련 연구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금융교육과 관련된 문헌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문헌연구들은 금전관리 기술 교수와 관련된 국내 중재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신현기, 이소림, 2009)을 하거나 국외연구까지 확장하여 금전관리 기술 교수에 관해 체계적으로 문헌을 분석하였다(이혜전, 임경원, 2011). 최근에 2편의 문헌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국내 중재연구에 관한 분석과 함께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의 질을 평가하거나(이수진, 김우리, 2020) 국내외 화폐 사용기술 중재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을 한 연구였다(백지은, 2021). 국외연구에서 확인된 2편의 문헌연구도 모두 메타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물품 구입과 관련한 중재효과를 조사하였다(Jung et al., 2022; Xin et al., 2005).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달장애 학생의 금융교육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들은 모두 실험연

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로 화폐 계산, 물건구매 등의 영역에만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융문해력은 단순히 화폐 사용만이 아닌 예산 수립, 저축, 금융 위험 감지 및 예방 등을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기에(OECD, 2015) 기존 금융교육 관련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금융교육 범위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실험연구 외에 다양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문헌연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자녀의 금융문해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인(예: 부모)에 대한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만을 분석한 기존의 문헌연구에서 벗어나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자(교사나 학부모 등)를 확대하되, 특히 OECD/INFE 청소년을 위한 금융문해력 프레임워크(OECD, 2015)의 역량과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금융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직 미진한 금융교육과 관련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금융교육과 프로그램 및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발표연도, 연구 참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관련 국내외 중재연구의 특성(금융교육 구성영역, 중재 전략, 종속변인)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논문수집 및 선정기준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OECD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해인 200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표된 발달장애인의 금융 문해 관련 국내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을 선정기준으로 문헌을 수집하였다.

첫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동료검토 된 연구를 선정하였다.

둘째,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령기 학생과 이들을 둘러싼 관련인(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학생 참여자의 나이가 혼합된 경우 학령기를 지난 과연령이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포함하였다.

셋째, 중재연구에서 여러 장애영역이 혼재된 경우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진단된 경우 분석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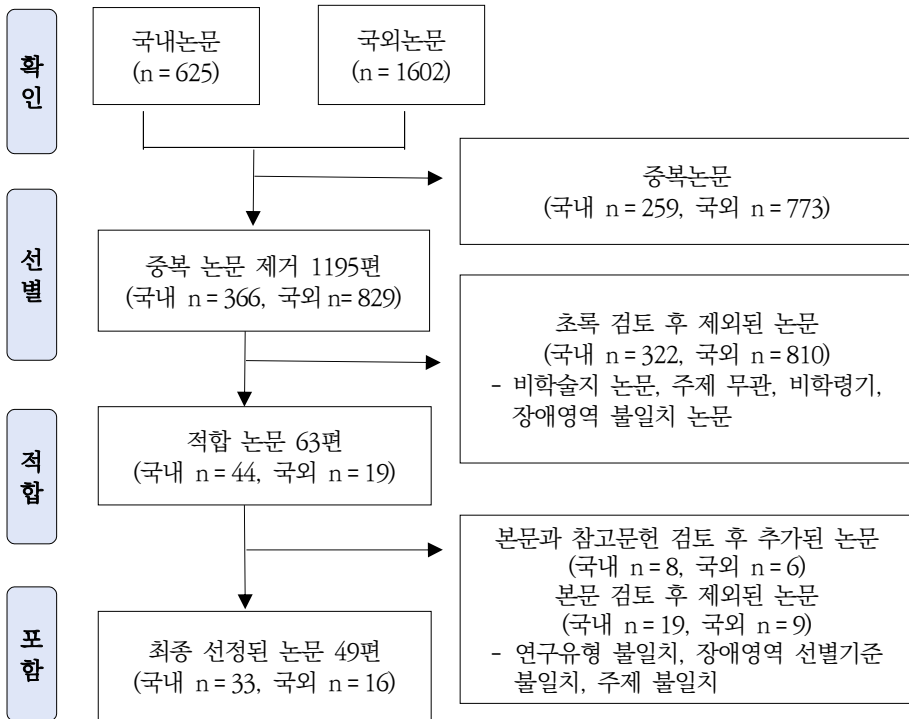
넷째, 질적연구, 실험연구, 문헌분석, 조사연구, 혼합연구 등은 포함하되 기사문, 개발연구, 학

위논문, 연구보고서나 단행본 등은 제외했다.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수집하기 위한 검색어는 미국전환교육센터(National Secondary Transition Technical Assistance Center)가 개발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생활기술 교수영역 중 Money(Banking과 Purchasing)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전기술 관련 용어들과 OECD/INFE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금융문해력을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OECD, 2015)에 제시된 내용영역의 하위 주제어를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OECD에서 공식적으로 financial literacy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프로젝트에 착수한 시기를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23년 1월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검색하였다. 국내연구 수집을 위해서는 주요 검색엔진인 RISS, KISS, DBpia에서 ‘경제교육’, ‘금융교육’, ‘금융문해력’, ‘금전관리’, ‘재정관리’, ‘돈 관리’, ‘구매’, ‘구매’, ‘지불’, ‘예산’, ‘저축’, ‘예금’, ‘카드’, ‘인출기’, ‘화폐 계산’, ‘경제활동’, ‘화폐’, ‘현금’, ‘은행’, ‘금융’, ‘지역사회중심’, ‘일상생활기술’, ‘사기’, ‘세금’, ‘지적장애’, ‘자폐’,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주제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국외 연구는 Education Source(EBSCOhost), ERIC(ProQuest) 검색엔진에서 ‘economic education’,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literacy’, ‘money management’, ‘finance management’, ‘money calculation’, ‘purchasing’, ‘buying’, ‘shopping’, ‘cashing’, ‘budgeting’, ‘saving’, ‘credit’, ‘card’, ‘ATM’, ‘money computation’, ‘economic activity’, ‘checks’, ‘cash’, ‘banking’, ‘finance’, ‘daily living skills’, ‘scam’, ‘fraud’, ‘taxes’, ‘intellectual disabilit\*’, ‘autistic’, ‘autism’, ‘mental retardation’, ‘developmental disabilit\*’를 핵심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위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총 2,227편이 검색되었으며 Endnote를 활용하여 중복된 논문을 제거하여 총 1195편의 논문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 논문들의 초록을 검토하여 비학술지 논문이거나 주제, 연령, 장애영역 기준에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총 63편의 논문을 2차로 선정하였다. 본문과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검색기준에 맞지 않는 논문 28편을 제외하고 문헌수집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추가 검색한 논문과 선행 문헌 연구들의 참고문헌을 보고 적합한 논문 14편을 추가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 국내논문 33편과 국외논문 16편, 총 4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 선정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문 선정 절차 (PRISMA flow diagram)

## 2. 논문 분석의 틀

발달장애 학생의 금융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이혜전, 임경원, 2011)에서 사용된 분석의 틀을 참고로 선별된 49편의 논문을 <표 1>과 같이 전반적 동향(발표연도,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연구주제)과 중재특성(독립변인, 종속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혜전과 임경원(2011)은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기술 교수 문헌분석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관리 기술에 대한 문헌(Browder & Grasso, 1999)과 구매기술 효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Xin et al., 2005)에서 활용된 변인을 참고하여 연구대상, 교수내용, 교수방법, 반응전략, 교수수정, 교수환경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금융교육과 관련된 하위 주제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아울러 금융문해력의 구성영역은 OECD/INFE의 청소년을 위한 금융문해력에 관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내용 영역과 하위 주제를 참고로 돈과 거래(매매), 금융계획과 관리, 위험과 보상, 금융부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OECD, 2015).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돈과 거래, 금융계획과 관리, 위험과 보상, 금융부문 4개의 내용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다룰 4~7개의 하위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하위 주제에서 성취해야 할 역량을 지식, 태도, 행동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에 맞는 성취목표를 1~3단계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1〉 분석의 틀

분석 범주		내용
전반적 동향	발표연도	발표연도별 논문 수
	연구방법	질적연구, 실험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기타연구
	연구참여자	학생(초등, 중등, 고등), 교사, 부모, 관련 종사자
	연구주제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수의 효과 금융교육 관련 교사의 경험과 인식
중재 특성	독립변인	금융문해역량 내용영역 돈과 거래, 금융계획과 관리, 위험과 보상, 금융부문
		중재 전략 체계적 교수, 인지 전략 교수, 명시적 교수(직접 교수), 조작물(교구), 공학보조 교수
	종속변인	물건값 계산, 물건구매 절차, 금융관련기기 이용(ATM, 카드결제기), 예산 계획 및 관리, 경제개념

중재특성의 중재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체계적 교수는 과제 분석, 최소촉진법, 시간 지연, 반응 촉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여 목표 기술을 교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인지 전략 교수는 도식기반 교수(수정된 쉼마 기반 교수), 수학 전략, 자기 교수(자기모니터링 포함), 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사회기반 교수는 지역사회 모의수업과 지역사회 중심수업 및 일반사례 교수를 포함하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명시적 교수는 직접 교수, 오류수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구체물은 조작물이나 터치메스를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공학 교수는 멀티미디어, 비디오, 오디오, 게임, SNS, 앱이나 스마트기기,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교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화 전략은 토큰과 같이 구체물을 활용하여 학생의 행동 발생 빈도를 높이고자 구체물을 활용한 경우이고 수학 전략은 One-more-than 기법이나 Counting-on 같은 전략을 활용한 수학 교수로 정하였다.

### 3. 분석자 간 신뢰도

신뢰도 있는 문헌분석을 위해 총 49편의 논문에 대하여 먼저 연구자(제1저자)가 전반적인 동향과 주제별 심층 분석하였다. 그 후 10년 이상의 특수교육 현장 경험을 가진 석사생 1인이 제1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표를 보고 원논문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신뢰도는 일치한 논문의 수를 전체 논문의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는 9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세부 변인에 따른 신뢰도는 발표연도, 연구참여자, 연구방법에 관한 신뢰도는 100%로 나타났고, 중재특성과 관련하여 금융문해 구성요소에 관한 신뢰도는 100%, 다른 변인(독립변인, 종속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95.7%(91.4%~100%)로 확인되었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될 때까지 원논문을 재확인하여 최종 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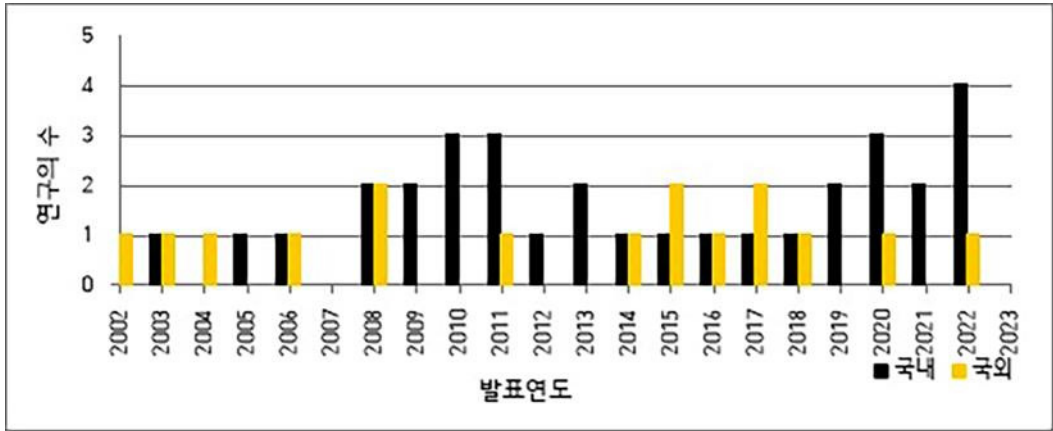
### Ⅲ. 연구 결과

#### 1.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분석

국내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주제, 발표연도,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로 분석하였다.

##### 1) 발표연도 분석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동안 발표된 발달장애 학생 대상 금융교육 관련 연구는 국내 33편과 국외 16편으로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를 보면, 국내연구가 국외연구보다 2배가량 많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연구의 경우 2004년, 2007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년 2편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금융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4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화폐 교수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 실험연구(백지은, 2022b), 화폐기술 교수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조사와 면담을 병행한 연구(백지은, 2022a), STEAM 기반 경제교육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물어본 조사연구(이승훈, 2022),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본 질적연구(장혜숙, 한경근, 2022)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외연구의 경우 2002년부터 5년 간격으로 3편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2008년과 2017년에는 각 2편씩 발표되었다. 동기간 발표된 연구의 총수를 비교해 볼 때 국외연구의 경우 국내 연구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연도별 출판 연구의 수

2) 연구방법 분석

선별된 49편의 연구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방법

구분		국내	국외	총계(%)		
집단연구	단일집단 사전사후	1	1	2		
	통계집단 사전사후	4	0	4		
실험연구	반전설계	1	0	1	35(71.43)	
	단일대상연구	교대중재 설계	0	1		1
	중다 기초선 설계	15	12	27		
조사연구		3	0	3(6.12)		
문헌연구		5	2	7(14.29)		
질적연구		2	0	2(4.08)		
혼합연구 (조사연구+질적연구)		1	0	1(2.04)		
기타연구		1	0	1(2.04)		
총계(%)		33(67.3)	16(32.7)	49(100)		

먼저, 연구방법별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49편의 연구 중 실험연구가 35편(7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문헌연구가 7편(14.3%), 조사연구와 질적연구는 각 3편

(6.1%)과 2편(4.1%) 발표되었다. 그 외에 혼합연구와 기타연구가 각 1편(2%)씩 있었다. 국내외별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국내연구의 경우 총 33편의 연구 중 21편의 연구가 실험연구로 확인되었다. 실험연구 21편 중에서는 16편의 연구가 단일대상연구였고 5편의 연구가 집단연구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계를 보면 16편의 단일대상연구에서 15편의 연구가 중다 기초선 설계를 활용한 연구로 가장 빈번히 활용된 설계로 확인되었다. 1편의 반전설계 연구(이선영, 강옥려, 2021)도 진행되었는데 계산기를 활용한 화폐 교육을 통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물건값 계산능력과 수업 참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는 5편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금전관리, 화폐기술과 관련된 선행 실험연구를 고찰하였다. 3편의 조사연구와 2편의 질적연구는 STEAM 기반 경제교육 프로그램(권미영, 2018, 2019; 권미영, 차국일, 2020; 이승훈, 2022)이나 경제교육에 대한 특수 교사의 경험과 요구(장혜숙, 한경근, 2022)를 다루었다. 조사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진행한 혼합 연구도 1편 확인되었는데 화폐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백지은, 2022a). 기타연구로 STEAM 기반 경제교육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을 델파이 조사한 연구(권미영, 2020)도 1편 확인되었다. 국외연구의 경우, 총 16편의 연구 중 2편의 문헌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4편 모두 실험연구였다. 전체 14편의 실험연구 중 부모와 자녀 짝을 대상으로 돈 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기술에 관한 집단 중재연구가 1편(Duncan et al., 2018)이었고 나머지 13편이 단일대상연구로 국내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 확인되었다. 13편의 단일대상연구 중에 12편이 중다 기초선 설계를 활용한 연구였고 그 외에 교대 중재 설계 연구가 1편(Bouck et al., 2017) 이루어졌는데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가지 자기조절촉진 체계(사진, 오디오, 비디오 촉진) 중 쇼핑에 가장 효과적인 촉진체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2편의 문헌연구로 발달장애 학생의 구매기술 교수(Xin et al., 2005)에 관한 문헌연구와 지적장애 학생과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쇼핑기술 습득에 대한 공학 지원 효과(Jung et al., 2022)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질적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연구와 국외연구를 비교해 볼 때 국내연구가 국외연구보다 더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참여자 분석

연구참여자 유형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관련 종사자로 구분되었고 참여자 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관련 종사자	총계(%)
	초등	중등	고등	합계					
국내	9	5	7	21	0	7	2	1	31(64.6)
국외	1	6	9	16	1	0	0	0	17(35.4)
총계 (%)	10	11	16	37	1	7	2	1	48(100)

주. 연구참여자가 있는 연구에 한정하여 중복 분석되어 총 편수는 분석대상 논문의 수와 다름

국내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있는 연구 31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1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생 내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7편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생 다음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총 7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전문가(교수 등)를 대상으로 한 2편의 연구(권미영, 2020; 권미영, 차국일, 2020)와 장애학생 유관기관 관련 종사자를 연구참여자로 한 1편의 연구(이승훈, 2022)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국외연구 17편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6편으로 국내연구와 같이 국외연구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6편 발표되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오직 1편에 그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이외의 연구참여자를 보면 부모와 학생 짝을 대상으로 한 연구(Duncan et al., 2018)를 제외하고는 교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 연구를 통틀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7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 연구참여자 내에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연구가 10편, 11편, 16편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의 차이점을 보면 학교급별 구성에 있어서 국내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국외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의 다양성에서 볼 때 국외연구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국내연구는 장애학생 외에도 교사, 전문가, 주변 관련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 4)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발달장애인의 금융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 49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2가지 연구주제로 나누어졌다. 주제Ⅰ(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증재의 효과)을 다룬 연구는 전체 49편 중 42편(85.7%)으로 대다수의 연구가 주제Ⅰ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제Ⅱ(금융교육 관련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는 6편(14.6%)으로 모두 국내연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연구주제	편수		총계(%)
	국내	국외	
I.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증재의 효과	26	16	
1) 증재연구	21	14	42(85.7)
2) 문헌연구	5	2	
II. 금융교육 관련 교사의 경험과 인식	7	0	7(14.3)
총계(%)	33	16	49(100)

##### (1) 주제Ⅰ: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증재의 효과

발달장애 학생의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증재의 효과를 다룬 42편의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금융 관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수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와 2) 금융교육과 관련한 실험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문헌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교수하거나 다양한 증거기반의 교수법을 활용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SNS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김남희, 정동영, 2016), KDB 모형 화폐 교수 프로그램(백지은, 2022b), 기능적 활동 중심 수학교수 프로그램(이미희, 강영심, 2014)과 같은 다양한 증재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고 모두 교실 내에서 교수가 이루어졌다. 금융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증거기반의 여러 교수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자기 교수, 체계적 교수 등과 같이 효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실재를 혼합 적용하여 금융교육 내용을 교실 내에서 1차로 교수하고 2차로 지역사회에 나가 실제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김영준, 김진호, 2010; 장혜성, 박승희, 2005). 이들 연구는 다양한 교수전략의 혼합하여 교수하는 것이 교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 증재 전에 교실 훈련이 필요하며 교실 내 증재와 지역사회 증재를 함께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 수학 전략을 활용한 연구로 Next dollar 전략과 자기 교수 훈련을 활용하여 화폐 지불 기술을 지도한 연구가 있었다(이성용, 2017). 국외연구의 경우, 모바일(Hsu et al., 2016)이나 AR게임(Kang & Chang, 2020) 또는 Ipad 어플(Cakmak & Cakmak,

2015)과 같은 공학과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교수(촉진, 시간지연, 체계적 교수 등)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많았다(Mechling et al., 2003; Root et al., 2017). 수학 전략을 활용한 연구도 있었는데 Dollar plus 전략, Counting-on 기술, Next dollar 전략, One-more-than 기법 등 다양한 수학 전략을 활용하여 교실과 지역사회에서 물품의 가격에 맞는 화폐지불 기술을 지도하고자 하였다(Ayer & Langone, 2002; Ayer et al., 2006; Cihak & Grim, 2008; Hsu et al., 2014; Hsu et al., 2016).

한편 금융문해력 향상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관련 실험연구를 고찰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는 화폐사용기술(백지은, 2021)을 메타분석한 연구, 금전관리기술 교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신현기, 이소림, 2009; 이해전, 임경원, 2011), 물건구입하기(이성용, 김진호, 2011) 관련 실험연구를 분석한 연구, 화폐 계산하기(이수진, 김우리, 2020)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외연구에서는 2편의 메타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지역사회 쇼핑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테크놀로지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Jung et al., 2022)와 발달장애인의 구입기술 연구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Xin et al., 2005)가 있었다.

## (2) 주제II: 금융교육 관련 교사의 경험과 인식

발달장애 학생의 금융교육 관련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다룬 7편의 연구는 모두 국내연구로 1) STEAM 기반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본 연구, 2) STEAM 기반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을 알아본 연구, 3)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경제교육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TEAM 기반 경제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본 5편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STEAM 기반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권미영, 2018)을 알아본 연구, STEAM 기반 경제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요구(권미영, 2019)에 관한 연구, STEAM 기반 경제교육의 내용과 이를 현장에 적용할 때 문제점(이승훈, 2022)을 알아본 연구가 있었다. 심층 조사를 위해 특수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여 STEAM 기반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도 있었다(권미영, 차국일, 2020). 그 외에 STEAM 기반 경제교육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델파이 연구도 확인되었다(권미영, 2020). 이들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의 내용 구성은 비장애학생과 같아야 하지만 교수 방법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EAM 기반 경제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체험 중심적이고 창의 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애학생의 경제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본 다른 2편의 연구 중 백지은(2022a)의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와 면담을 하여 지적장애 학생의 화폐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화폐기술 습득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직접 교수, 촉진 등 다

양한 증거기반의 교수가 필요하고 기술의 일반화를 위해서 지역사회교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한 편의 연구(장혜숙, 한경근, 2022)에서는 특수교사를 면담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제·금융교육의 방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 2. 금융교육 관련 중재연구의 중재특성 분석

연구 주제1(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중재의 효과)과 관련된 35편의 실험논문을 추가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관련 중재연구의 특성과 종속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1) 금융문해력의 핵심역량 내용 영역에 관한 분석

OECD/INFE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문해력 핵심역량 내용 영역을 토대로 금융교육 관련 중재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금융문해 내용 영역 분석

내용 영역	주제	금융문해력 역량 세부 내용 예시	편수		총계(%)
			국내	국외	
돈과 거래	돈	돈의 형태, 돈의 가치, 돈 보관	3	0	3(6.4)
	수입	수입원의 종류, 수입증대 활동	0	0	0
	지불과 구매	할인/세금을 고려한 상품 선택, 가격 계산, 가격/수량을 고려한 상품 선택, 돈 지불, 카드사용, 구입 후 영수증 목록 확인	20	14	34 (72.3)
	가격	동일물품 다른 가격 이해, 현실적인 가격	0	0	0
	금융기록과 계약	청구서, 보증서 등 금융기록 구별과 작성 및 보관, 소비 모니터링이나 영수증 확인을 위한 계산, 영수증 가격 확인	6	0	6 (12.8)
	외환	외화로 지불, 환율의 적용	0	0	0
금융 계획과 관리	예산 수립	규칙적 불규칙적 예산구별, 수입과 지출 지속적인 확인	0	0	0
	수입과 지출 관리	소비와 지출 시 다른 옵션 고려, 과소비 피하기, 시기적절한 지출 결정, 이전 금융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3	0	3 (6.4)
	저축	저축의 이득, 저축가능액 산정 및 결정	1	0	1(2.1)
	장기 계획	노후 대비, 돈이 필요한 미래 사건 예상	0	0	0
	신용	대출과 책임, 이자 변동	0	0	0

〈표 5〉 금융문해 내용 영역 분석 〈계속〉

내용 영역	주제	금융문해력 역량		편수		총계(%)
		세부 내용	예시	국내	국외	
위험과 보상	가치 변화	시간에 따른 가치 변화, 투자 가치 변화		0	0	0
	위험 인식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 인식, 카드 미납, 금융 상품의 이해		0	0	0
	금융안전망과 보험	보험의 이해, 적절한 보험상품		0	0	0
	위험과 보상의 균형	금융 상품의 위험과 보상 이해		0	0	0
금융 부문	금융 규정과 소비자 보호	국가 내 금융규제자, 소비자 구제		0	0	0
	교육·정보·조언	금융 조력 기구, 금융정보와 홍보의 차이		0	0	0
	권리와 책임	제공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0	0	0
	금융 서비스 제공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해		0	0	0
	신용사기와 금융사기	사기를 예방하는 안전조치 이해		0	0	0
	세금과 공과금	국가 세금 시스템, 세금의 변동		0	0	0
	외부영향	금융 결정에 미치는 외부요인		0	0	0
총계(%)						47 (100)

주. 실험연구만 대상으로 중복 분석되어 총 편수는 분석대상 논문 수와 다름

2가지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는 경우 중복으로 분석하였다. 금융문해력의 핵심역량은 돈과 거래, 금융계획과 관리, 위험과 보상, 금융부문 등 4가지 내용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내용 영역 중 돈과 거래 영역에 관한 연구가 총 43편(9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과 거래의 하위 주제 중에서는 지불과 구매가 34편(7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록과 계약 관련 연구는 6편(12.8%), 돈 관련 연구는 3편(6.4%)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기록과 계약 관련 연구들로는 영수증을 확인하는 활동이 포함된 연구(남경옥 외, 2013)나 용돈 기입장 기록 활동을 포함하는 연구(조보원, 최윤희, 2011)들이 있었다. 그다음으로 금융계획과 관리영역이 총 4편으로 전체 연구의 8.5%를 차지하였다. 하위 주제를 보면 수입과 지출 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3편(6.4%), 저축을 다룬 연구가 1편(2.1%)으로 확인되었다. 수입과 지출 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학용품, 식료품, 도서 물품구매 계획서 작성 활동이 포함된 구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경제개념의 향상을 알아본 연구(유진수, 정동영, 2013)가 있었다. 즉, 돈과 거래 영역과 금융계획과 관리영역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금융교육의 다양한 하위 내용 영역 전반을 다루기보다



지불과 구매 또는 수입과 지출 관리 내용 영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과 보상 영역이나 금융부문 영역을 다룬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 2) 금융교육 관련 중재 전략에 대한 분석

금융교육 관련 중재 전략은 이해진, 임경원(2011)의 금전관리 기술 교수 문헌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기준을 참고로 6가지 교수전략(체계적 교수, 인지 전략교수, 구체물, 공학, 명시적 교수, 지역사회교수)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중재 전략 분석

중재 전략	편수			총계(%)			
	국내	국외					
체계적 교수	과제 분석	1	3	4	29(30.8)		
	최소최대촉진	7	3	10			
	시간 지연	7	2	9			
	반응 촉진	4	2	6			
인지 전략 교수	도식기반 교수	0	1	1	16(17)		
	자기 교수	6	1	7			
	모델링, 자기 모델링	7	1	8			
지역사회 기반교수	지역사회 모의 교수	2	1	3	17(18.1)		
	지역사회 참조 교수	1	0	1			
	지역사회 중심 교수	9	2	11			
일반사례교수	2	0	2				
명시적 교수	직접 교수	2	2	0	0	2	2(2.1)
구체물	구체물	0	0	1	1	1	1(1.1)
공학	공학 교수	8	8	9	9	17	17(18.1)
기타	강화 전략	1		0		1	12(12.8)
	시각 지원	4	6	1	6	5	
	수학 전략	0		5		5	
	기타	1		0		1	
총계(%)		62	32			94(100)	

주. 중복 분석되어 총 편수는 분석대상 논문 수인 49편을 초과함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외 전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교수는 체계적 교수로 29편(30.8%)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체계적 교수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다양한 중재와 체계적 교수의 하위 전략이 함께 사용되었다. 특히, 체계적 교수 중 최대최소 촉진과 시간지연이 각 10편과 9편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기반 교수가 17편(18.1%)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그중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11편으로 지역사회기반 교수의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이들 연구는 교실에서 1차로 모델링을 이용한 교수를 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실제 적용한 연구들이었다(권용덕, 장혜성, 2012; 김영준, 김진호, 2010; 김해근, 백은희, 2006; 박지윤, 김은경, 2008). 대표적인 일례로, 양경애 외(2008)는 자폐성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기능 증진을 위해 음료수 자판기 이용하기, 패스트푸드점 이용하기, 문구점 이용하기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교실, 학교 내, 지역사회 3가지 환경에서 지역사회기반 교수의 3가지 유형인 지역사회 모의 수업, 지역사회 참조 수업, 지역사회 중심수업을 하였다. 세 번째로 많이 활용된 교수는 공학 교수로 17편(18.1%)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는데 멀티미디어(권용덕, 장혜성, 2012)나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2009), SNS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김영준, 김진호, 2010),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지경미, 박은혜, 2002; Ayer & Langone, 2002; Hansen & Morgan, 2008; Mechling et al., 2003), 모바일이나 어플 또는 증강현실 게임(Cakmak & Cakmak, 2015; Hsu et al., 2016; Kang & Chang, 2020)등을 활용하였다. 국내연구보다 주로 국외연구에서 공학을 활용한 교수가 더 많이 확인되었다. 네 번째로 인지 전략 교수를 활용한 연구가 16편(17%) 발표되었는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링이나 자기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는 8편으로 대개 교실에서 모델링을 활용하여 물건 구입 기술을 지도하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기술 적용을 시도한 연구(김영준, 김진호, 2010; 김해근, 백은희, 2006; 남경옥 외, 2013; 박지윤, 김은경, 2008; 이성용, 김진호, 2019)들이 많았다. 다섯 번째로 직접 교수를 활용한 2편의 연구도 확인되었다. 일례로 김영준과 김진호(2010)는 직접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 요소로 구성된 지역사회 중심 교수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일상생활기술(현금인출, 마트 이용기술, 가계부 기록 기술) 수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타 중재방법으로 수학 전략을 활용한 5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모두 국외연구로 물건값 계산하기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Dollar Plus 전략(Ayer & Langone, 2002; Ayers et al., 2006), Counting-on 기술과 Next Dollar 전략의 연합(Cihak & Grim, 2008) 또는 One-more-than기법(Hsu et al., 2014; Hsu et al., 2016)을 활용한 연구였다. 그 외에 시각지원을 활용한 연구가 5편, 구체물이나 강화 전략을 사용한 연구가 각 1편 보고되었다.

국내외 별로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는 체계적 교수가 19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다음으로 지역사회기반 교수가 14편, 인지 전략 교수가 13편, 공학 교수가 8편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 외에 2편의 연구에서 직접 교수를 활용하였고 시각 지원과 강화 전략을 사용한 연구도 각 4편과 1편씩 확인되었다. 국외연구에서도 체계적 교수를 활용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고 공학 교수를 활용한 연구도 9편 확인되었다. 그 외에 수학 전략을 활용한 연구가 5편, 인지 전략 교수와 지역사회기반 교수가 각 3편씩 있었고 시각지원을 활용한 연구가 1편으로 확인되었다.

### 3) 금융교육 관련 종속변인에 대한 분석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종속변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건값 계산, 물건구매 절차, 금융관련기기 이용, 예산 계획 및 관리, 금융 및 경제 관련 개념의 5가지 영역으로 유목화되었고, 여러 종속변인을 함께 측정하는 연구는 중복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종속변인

종속변인	국내	국외	총계(%)
물건값 계산	8	10	18(33.3)
물건구매 절차	13	5	18(33.3)
금융관련기기 이용	4	2	6(11.1)
예산 계획 및 관리	7	2	9(16.7)
금융 및 경제 관련 개념	3	0	3(5.6)
총계(%)	35	19	54(100)

주. 중복 분석되어 총 편수는 분석대상 논문 수인 49편을 초과함

국내의 연구를 통틀어 보면 종속변인으로 물건값 계산하기와 물건구매 절차를 측정하는 연구가 각 18편(33.3%)씩 총 36편으로 가장 많이 측정되었다. 그다음으로 예산 계획 및 관리는 9편(16.7%)의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6편(11.1%)의 연구에서 금융 관련 기기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금융 및 경제개념에 관한 연구는 전체 연구 가운데 3편(5.6%)에 그쳐서 국내외 연구에서 금융 및 경제개념에 관한 연구가 미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연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연구의 경우 가장 많이 측정된 종속변인은 물건구매 절차로 35편의 국내연구 중 13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물건값 계산이 8편, 예산 계획 및 관리가 7편, 금융 관련 기기 이용이 4편, 금융 및 경제 관련 개념이 3편 순으로 자주 측정되었다. 국외연구에서는 물건값 계산하기를 측정하는 연구가 10편으로 전체 국외연구 중 절반 이상의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물건구매 절차를 측정하는 연구가 5편, 금융 관련 기기 이용과 예산 계획 및 관리가 각 2편이었다. 반면에 금융 및 경제 관련 개념을 측정하는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교육 증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지, 행동의 정확도에 따른 점수 평정, 정반응 여부를 기록하는 수행관찰 기록표,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도구 4가지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인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종속변인 측정도구

종속변인 측정방법	가계	구매	금융기기	예산 계획	금융경제	총계(%)	
	계산	절차	이용	및 관리	개념		
연구자 개발 평가지	국내	5	1	0	1	1	8
	국외	1	0	0	0	0	1
행동의 수행기반 점수 평정	국내	2	3	0	2	0	7
	국외	1	0	0	0	0	1
정반응 기록표	국내	4	9	4	2	0	19
	국외	7	5	2	0	0	14
표준화된 검사도구	국내	4	0	0	2	2	8
	국외	1	0	0	1	0	2
총계(%)						60	100

주.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측정도구로 2가지 이상의 종속변인을 측정할 경우 중복 분석됨

국내외 전체 연구에서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여 정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 33편(55%)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 경우가 10편(16.7%)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지를 사용한 연구가 9편(15%), 행동의 수행 정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평정한 연구가 8편(13.3%)으로 나타났다. 국내외별로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는 정반응기록표를 측정도구로 활용한 연구가 1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지나 표준화된 평가지를 활용한 연구가 각 8편이었다. 학생의 행동 수행의 정확도에 따른 점수 평정방법을 활용을 측정방법으로 택한 연구는 7편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정반응기록표를 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가 14편으로 국내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편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검사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였고 연구자 개발 평가지나 행동의 정확도에 따른 점수 평정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1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정반응기록표를 활용한 측정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학생의 금융교육을 주제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전반적인 동향(발표연도, 연구참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과 중재연구의 특성(금융교육 구성영역, 중재전략, 종속변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교육에 관한 전반적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발표연도를 살펴보면 국외연구보다 국내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국내에서 최근 4년(2019~2022) 사이에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학생 참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방법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가 실험연구였고 실험연구에서 다른 교수내용은 돈과 거래 영역과 금융계획과 관리영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연구주제는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중재의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재연구의 특징과 관련하여 OECD/INFE 금융문해력 핵심역량의 내용 영역 중 돈과 거래 영역 그리고 금융계획과 관리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이루어졌지만, 위험과 보장 영역과 금융부문 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한 편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된 중재유형은 체계적 교수와 지역사회기반 교수, 공학활용 교수와 인지 전략 교수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은 물건값 계산하기와 물건구매절차가 가장 빈번히 측정되었고 측정도구로 정반응 여부를 기록한 정반응기록표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금융문해력 및 금융교육을 위한 후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자의 범위 확대, 2) 연구방법의 다양화, 3) 금융교육 내용 및 중재 방법의 다양화, 4) 금융문해력 측정도구 개발

첫째, 연구대상자를 학부모 등 주변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연구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수에 불과했다. 최근에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관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자녀의 금융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금융교육은 실생활인 가정에서 지도가 중요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제 관련 결정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결정 기회를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Suto et al., 2005).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가 자녀의 경제의식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으므로(김홍찬, 2019) 연구대상자를 부모로 확장하여 가정에서 장애 자녀를 위한 금융교육 지도에 관한 연구나 가정에서 금융교육 지도 시 어려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교육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각적인 해석을 위해 연구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 49편의 연구 중 70%가량이 실험연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국내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본 2편의 질적연구(권미영, 차국일, 2020; 장혜숙, 한경근, 2022)가 발표되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중재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장애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한 편도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교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질적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장혜숙과 한경근(2022)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본 결과 경제·금융교육의 어려움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질적연구나 다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발달장애 학생이나 장애 성인 당사자 또는 그들의 부모,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유관기관 관련인, 장애인 고용주 등 관련인의 경험을 탐색해본다면 금융문해력과 금융교육의 난점과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구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금융교육 내용과 중재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봤듯이 금융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교수 내용이 대부분 화폐 계산과 물건구매 절차에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OECD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문해 역량 중 돈과 거래나 금융 계획과 관리 영역에 비해 위험과 보상 영역이나 금융부문 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과 보상 영역과 금융부문 영역의 하위 내용이 상대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영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제한에 대한 낮은 기대와 편견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비록 이들 영역의 일부 내용 중에는 발달장애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예: 보험 상품)도 있지만, 그들의 미래 삶을 위해 반드시 지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장기 계획 내용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질병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예상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돈이 필요한 미래 사건을 예상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계획 수립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또는 카드 미납,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 인식을 포함하는 위험 인식 내용 영역과 신용 사기와 금융사기 영역에 관한 내용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장혜숙, 한경근, 2022)에 비추어보았을 때 반드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세금과 공과금 내용 영역의 내용도 학교를 졸업 후 직장생활과 자립 생활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포괄하고 있기에 학교에서 직업교육과 금융교육을 통합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 측면의 균형과 더불어 지적·정의적·기능적 측면의 균형도 중요할 것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기술이나 기능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금융 및 경제 개념도 균형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금융 및 경제 관련 개념 지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3편으로 매우 부족하였는데 만약 대다수의 장애학생들이 물건값 계산과 지역사회에서 물품구매에 초점을 둔 교육만을 받고 졸업한다면 졸업 이후의 생활에서 접하는 일상적인 경제·금융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리도 어려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비장애 초·중·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도 실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경제학 기본 개념이나 원리 이해는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채민선, 202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졸업 이후의 직장생활에서 접하는 연금, 세금, 보험 등 경제·금융 관련 개념과 이와 관련한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등 실제적 금융 지식도 성인기 전환을 준비하거나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따라서, 예산 계획 및 관리, 금융범죄 예방, 금융 개념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 방법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국내연구는 지역사회중심교수나 체계적 교수를 활용한 연구가 많은 반면에 국외연구는 모바일 구입 보조 시스템 앱이나 증강현실 또는 체크카드 자동지불기기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은행 방문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한 물품 구입과 같이 디지털 금융(핀테크)이 강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교육 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교육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금융문해력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 측정도구로는 관찰 후 정반응기록표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률을 산출하거나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지를 활용하였다. 표준화된 검사를 활용한 연구는 금융경제개념 측정을 위해 경제개념검사를 활용한 연구(김남희, 정동영, 2016; 유진수, 정동영, 2013), 화폐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초학력검사를 활용한 연구(백지은, 2022b)를 포함해 3편에 그쳤다. 분석 대상 연구들이 자주 활용한 정반응기록표나 연구자 개발 평가지는 학생의 수행수준 변화를 통해 중재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장애 학생의 경제문해력 수준이 또래와 비교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에 관한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이해력 테스트로 금융이해 수준을 측정하지만, 장애학생 대상 금융문해력 측정도구는 없어서 금융지식 이해 수준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측정도구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금융이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문해력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금융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과 금융교육 중재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령기의 발달장애 학생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제외했기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금융 관련 문제와 요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문해력은 졸업 후 성인의 삶에서 더욱 필요한 기술이기에 후속연구는 연구대상을 성인으로 확장하여 성인기 생활에서 금융문제의 어려움과 성공적인 금융 관리를 위해 졸업 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을 위한 실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금융문해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해야 할 내용을 비교하여 교육과정에서 담아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문헌연구들이 금융교육을 화폐 계산이나 물건 구입에 국한하여 동향을 파악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OECD/INFE에서 제시하는 금융문해력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금융교육의 주제 조사범위, 연구대상과 방법을 확대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표시는 분석대상 논문임.

- 강남주, 손상희 (2021). 가치기반 아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개인재무관리 영역별 가치를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59(4), 501-523.
- \*권미영 (2018). 장애학생의 STEAM 기반 경제교육 실시를 위한 교사 인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3), 239-258. <https://doi.org/10.23944/Jasers.2018.09.57.3.12>
- \*권미영 (2019). STEAM 기반 장애학생 경제교육(SEED)에 대한 특수교사 요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1), 79-100. <https://doi.org/10.23944/Jasers.2019.03.58.1.4>
- \*권미영 (2020). 델파이 조사를 통한 장애학생의 STEAM 기반 경제교육프로그램의 타당성.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1), 1-25. <https://doi.org/10.23944/Jasers.2020.03.59.1.1>
- \*권미영, 차국일 (2020). 장애학생을 위한 STEAM 기반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3), 235-254. <https://doi.org/10.23944/Jasers.2020.09.59.3.11>
- \*권용덕, 장혜성 (2012).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중심교수가 지적장애 중학생의 대형마트 이용 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4(2), 225-248.
- \*권택환, 신재훈, 신재한 (2009). 경제생활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이 초등학교 정신지체학생의 경제생활 과제수행능력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1(1), 377-398. <http://doi.org/10.21075/kacs.2009.11.1.377>
- \*김남희, 정동영 (2016). SNS 기반 소비자교육이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경제개념과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2), 67-93.
- 김미옥, 박현정 (2012). 지적장애 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2), 213-239. <http://doi.org/10.20970/kasw.2012.64.2.009>
- 김미정 (2020). 생활중심 경제활동 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발달장애인의 합리적 소비능력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3), 117-140. <http://doi.org/10.23944/Jasers.2020.09.59.3.6>
- 김아영, 이숙향 (2023). 장애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란 지적장애 여성의 독립,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생애사 연구. *발달장애연구*, 27(1), 243-273. <https://doi.org/10.34262/kadd.2023.27.1.10>
- \*김영준, 김진호 (2010). 지역사회중심 교수프로그램이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일상생활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491-516. <http://doi.org/10.21075/kacs.2010.12.4.491>
- \*김해근, 백은희 (2006). 비디오 자기모델링, 시간지연 및 최소촉진법을 연합한 지역사회중심교수가 발달장애 학생의 대형마트 이용기술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8(4), 71-96.
- 김홍찬 (2019). 초등학생의 경제 지식이 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교육연구*, 4, 57-85.
- \*남경옥, 오순영, 신현기 (2013). 개별화된 지원을 포함한 자기점검법 훈련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물건구매 하기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353-377.
- \*박경석, 방명애, 홍점숙 (2015). 시각적 단서를 이용한 자기관리 중재가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현금인출기

- 사용기술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7(2), 25-47.
- 박광은 (2023. 1. 13.). 요금 보고 화들짝, 지적장애인 노린 폰 개통 사기 기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2\\_0002157196&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2_0002157196&cID=10201&pID=10200)
- 박성완 (2021. 11. 29.). '개정 교육과정'서 드러난 경제교육 현실. 한경오피니언.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29261511>
- 박성희 (2018). 독일 금융문해 교육 사례를 통해 본 노인 금융문해 교육의 전망. 노년교육연구, 4(1), 49-66.
- 박소민, 박지연 (2022).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년의 금전관리기술과 금융피해 예방기술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24(3), 103-129. <https://doi.org/10.35361/KJID.24.3.5>
- \*박지윤, 김은경 (2008). 비디오 자기모델링을 활용한 지역사회중심교수가 자폐아동의 자동판매기 이용 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4), 93-120.
- \*백지은 (2021).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화폐 사용기술 중재 연구 메타분석. 특수교육논총, 37(4), 241-260. <http://doi.org/10.31863/JSE.2021.11.37.4.241>
- \*백지은 (2022a). 지적장애학생의 화폐 기술 향상을 위한 교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현장 교사 대상 설문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고개발, 18(2), 89-119.
- \*백지은 (2022b). KDB 모형 및 메타분석을 통한 화폐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초등 지적장애 학생의 화폐 활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통합교육과정연구, 16(4), 77-114. <https://doi.org/10.35304/JCI.16.4.04>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신현기, 이소림 (2009). 발달장애인에 대한 금전관리 기술교수의 효과에 대한 문헌분석. 지적장애연구, 11(4), 55-77.
- \*양경애, 권명옥, 석인수 (2008). 지역사회중심 교수가 자폐성장애학생의 지역사회 기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3), 79-96.
- \*유진수, 정동영 (2013). 구매 프로젝트 학습이 지적장애학생의 경제개념 및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2), 167-187.
- \*이미희, 강영심 (2014). 기능적 활동중심 수학교수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화폐계산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6(1), 149-175.
- \*이선영, 강옥려 (2021). 계산기를 활용한 화폐교육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물건값 계산하기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41-255.
- \*이성용 (2017). 자기 교수 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화폐 지불 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영재교육저널, 4(1), 119-140.
- \*이성용, 김진호 (2011). 지적장애 학생의 물건 구입하기 기술에 대한 국내외 실험연구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6(1), 101-123.
- \*이성용, 김진호 (2019). 비디오 모델링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물건구매기술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21(4), 59-85. <https://doi.org/10.35361/KJID.21.4.3>
- 이소연 (2022). 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변천. 경제교육연구, 29(1), 61-97. <https://doi.org/10.37060/KJEE>

## 29.1.3

- \*이수진, 김우리 (2020). 지적장애인의 화폐 계산하기 증재 연구 분석. *지적장애연구*, 22(3), 155-179. <https://doi.org/10.35361/KJID.22.3.7>
- \*이승훈 (2022). 장애학생을 위한 STEAM 기반 경제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현장적용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61(2), 203-223. <https://doi.org/10.23944/jsers.2022.06.61.2.9>
- \*이혜전, 임경원 (2011).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기술 교수 관련 문헌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6(3), 107-129.
- 이혜정 (2023. 2. 7.). 금융경제, 누가 배우나 봤더니..“지방은 못 배운다”. EBS뉴스. <https://v.daum.net/v/20230207140922315>
- 임예직, 김호진, 조신영, 변혜미, 이윤지, 최종철, 전영환, 김언아 (2022).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장혜성 (2010). 지역사회중심교수가 정신지체 중학생의 지하철, 대형매장, 패스트푸드점 이용하기 기술에 미치는 효과. *재활복지*, 14(4), 153-179.
- \*장혜성, 박승희 (2003). 중도 정신지체 고등부 학생의 지역사회 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교수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2), 23-51.
- \*장혜성, 박승희 (2005). 다중요소로 구성된 지역사회중심교수가 일반고등학교 정신지체학생의 지역사회 활용기술 수행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1), 219-243.
- \*장혜숙, 한경근 (2022). 발달장애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특수교육교과 교육연구*, 15(4), 73-94. <http://doi.org/10.24005/seci.2022.15.4.73>
- \*조보원, 최윤희 (2011). 언어적 자기지시전략을 활용한 물건사기훈련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구매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0(1), 23-45.
- \*지경미, 박은혜 (2002). 정신지체 고등학생을 위한 컴퓨터 활용 전이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3), 311-330.
- 채민선 (2023. 2. 23.). 초중고, 실생활 경제지식 알지만 경제이해 부족. 증기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078>
- \*최윤진, 김은경 (2010). 형제자매의 지역사회중심교수가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의 물건사기 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자폐성장애연구*, 10(1), 23-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2022 장애인 통계.
- 황순영, 차세진 (2021). 발달장애인의 성·재산 범죄 가해·피해 사례와 지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경험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7(3), 1-29. <http://doi.org/10.31863/JSE.2021.08.37.3.1>
- \*Ayers, K. M., & Langone, J. (2002). Acquisition and generalization of purchasing skills using a video enhanced computer-based instructional progra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17(4), 15-28. <http://doi.org/10.1177/016264340201700402>
- \*Ayers, K. M., Langone, J., Boon, R. T., & Norman, A. (2006). Computer-based instruction for purchasing skills.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1(3), 253-263.
- Bouck, E. C., & Flanagan, S. M. (2010). Virtual manipulatives: What they are and how teachers can

- use them.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5(3), 186-191. <https://doi.org/10.1177/1053451209349530>
- \*Bouck, E. C., Satsangi, R., & Bartlett, W. (2017). Supporting grocery shopping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preliminary stud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12(6), 605-613. <https://doi.org/10.1080/17483107.2016.1201152>
- Browder, D. M., & Grasso, E. (1999). Teaching money skills to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a research review with practical applications. *Remedial & Special Education*, 20(5), 297-308. <https://doi.org/10.1177/074193259902000506>
- \*Cakmak, S., & Cakmak, S. (2015). Teaching to intellectual disability individuals the shopping skill through iPad.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4), 177-183. <https://doi.org/10.12973/eu-jer.4.4.177>
- Cheak-Zamora, N., Teti, M., Peters, C., & Maurer-Batjer, A. (2017). Financial capabilities among youth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6(5), 1310-1317. <https://doi.org/10.1007/s10826-017-0669-9>
- \*Cihak, D. F., & Grim, J. (2008). Teaching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use counting-on strategies to enhance independent purchasing skills.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2(4), 716-727. <https://doi.org/10.1016/j.asd.2008.02.006>
- Conder, J. A., & Mirfin, V. B. F. (2020). "Getting by":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y and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8(3), 251-257. <https://doi.org/10.1111/bld.12329>
- \*DiPipi-Hoy, C., & Jitendra, A. (2004). A parent-delivered intervention to teach purchasing skills to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3), 144-157. <https://doi.org/10.1177/00224669040380030201>
- \*Duncan, A., Ruble, L. A., Meinzen-Derr, J., Thomas, C., & Stark, L. J. (2018). Preliminary efficacy of a daily living skills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Autis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22(8), 983-994. <https://doi.org/10.1177/1362361317716606>
- \*Hansen, D. L., & Morgan, R. L. (2008). Teaching grocery store purchasing skills to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sing a computer-based instruction program.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3(4), 431-442.
- \*Hsu, G.-L., Hung, J.-C., Hwang, W.-Y., Li, Y.-C., Tang, J.-C., & Wei, C.-H. (2016). Modifications of the one-more-than technique: A comparison of two strategies for teaching purchasing skills to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Taiwan.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1(2), 132-149.
- \*Hsu G., Tang J., & Hwang W. (2014). Effects of extending the one-more-than technique with the support of a mobile purchasing assistance system.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5, 1809-1827. <https://doi.org/10.1016/j.ridd.2014.04.004>

- \*Jung, S., Ousley, C., McNaughton, D., & Wolfe, P. (2022). The effects of technology supports on community grocery shopping skill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eta-analysi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37*(3), 351-362. <https://doi.org/10.1177/0162643421989970>
- \*Kang, Y. S., & Chang, Y. J. (2020). Using an augmented reality game to teach thre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improve ATM use.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3*(3), 409-419. <https://doi.org/10.1111/jar.12683>
- \*Mechling, L. C., Gast, D. L., & Barthold, S. (2003). Multimedia computer-based instruction to teach students with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use a debit card to make purchases. *Exceptionality, 11*(4), 239-254. [https://doi.org/10.1207/S15327035EX1104\\_4](https://doi.org/10.1207/S15327035EX1104_4)
- OECD. (2015). OECD/INFE Core competencies framework on financial literacy for youth. <https://www.oecd.org/finance/Core-Competencies-Framework-Youth.pdf>
- OECD. (2020a). PISA 2018 Results (Volume IV): Are Students Smart about Money?. <https://www.oecd.org/daf/pisa-2018-results-volume-iv-48ebd1ba-en.htm>
- OECD. (2020b). Advancing the digital financial inclusion of youth. <https://www.oecd.org/finance/advancing-the-digital-financial-inclusion-of-youth.htm>
- OECD. (n.d.). OECD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OECD/INFE. <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oecd-international-network-on-financial-education.htm>
- \*Root, J., Saunders, A., Spooner, F., & Brosh, C. (2017). Teaching personal financ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to individuals with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y.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for Exceptional Individuals, 40*(1), 5-14. <https://doi.org/10.1177/2165143416681288>
- Suto, W. M. I., Clare, I. C. H., Holland, A. J., & Watson, P. C.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decision-making abilities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3), 210-217. <https://doi.org/10.1111/j.1365-2788.2005.00647.x>
- \*Waters, H. K., & Boon, R. T. (2011). Teaching money computation skills to high school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via the TouchMath© Program: A multi-sensory approach. *Education & Training in Autism & Developmental Disabilities, 46*(4), 544-555.
- \*Xin, Y. P., Grasso, E., DiPipi-Hoy, C. M., & Jitendra, A. (2005). The effects of purchasing skill instruc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eta-analysis. *Exceptional Children, 71*(4), 379-400. <https://doi.org/10.1177/001440290507100401>

Abstract

##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A-Young\* · Lee, Suk-Hya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itionally, it aimed to explore future directions regarding this issue. **Methods:** A total of 49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a systematic review to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themes.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ost studies were experimental research targe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search topics were divided into two themes: a) effects of programs and interventions related to financial education and b)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financial education. Most of the experimental studies focused on calculating prices or purchasing skills. Only a few studies targeted concepts of finance and economy.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financial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discussed.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Literacy, Money Management, Disabili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

\* Dep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First author, E-mail: miosami@naver.com)

\*\*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deepjoy@ewha.ac.kr)

논문 투고일 2023. 7. 10.

수정 제출일 2023. 8. 4.

게재 확정일 2023. 8. 14.